

미래는 테크노 천국일까, 테크노 지옥일까

강주현 | 번역가

첨단 과학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미래는 그야말로 장미빛이다. 인간의 몸이 유전자 조작으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인공지능을 단 기계로 보충함으로써 완전해질 것이고, 질병과 고통만이 아니라, 이번 황우석 사태에서 보았듯이 난치병이나 불치병까지도 가볍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한다. 또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라도 기억을 로봇에게 심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신과 같은 테크놀로지 덕분에 인류가 구원받은 '테크노 천국 시대'가 미래에 열릴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약간만 시야를 돌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 조지 오웰의 《1984》나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았듯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체주의 정부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악몽 같은 미래, 즉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가치를 상실한 세계가 도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미친 과학자, 잘못 조작된 로봇, 통제 불가능한 컴퓨터 및 생물학적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미래가 중세의 암흑시대로 다시 빠질 수도 있다. 테크노 천국에 대립되는 테크노 지옥인 셈이다. 과연 미래는 테크노 천국일까, 테크노 지옥일까? 컬럼비아 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다니엘 디넬로 Daniel Dinello는 21세기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인가?"라는 시의적절한 의문의 답을 《테크노포비아》에서 찾아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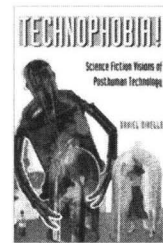
저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테크노 천국과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려지는 테크노 지옥간의 대립상을 테크놀로지의 각 분야별로 분석한다. 대부분의 영화가 테크놀로지의 무분별한 발전을 경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가 책의 제목에 쓰였다. 이 책은 로봇공학, 생체공학, 인공지능, 가상현실,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등으로 나누고, 각 테크놀로지의 현재 상황을 대략

적으로 요약한 후, 이와 관련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앞에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는 미래를 조지 오웰처럼 반인간적이고 파괴적이며 억압적인 사회로 묘사하는 비관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예로 들어보자.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육체가 없어도 정신이 살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상현실과 인터넷이 융합되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심지어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디지털화시켜 컴퓨터를 통해 언제라도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 반면에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은 사이버 공간을 위험한 곳으로 주로 묘사하며 인간의 정신까지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인공지능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것처럼 그린다.

그러나 영화나 소설의 재미는 언제나 반전에 있듯이 인간은 그런 억압적이고 조작적인 상황에 반발한다. 기계의 반란으로 인한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손놓고 있지 않고 테크놀로지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테크놀로지의 무분별한 확장과 발전이 가져온 상황에 반성하면서 인간다움의 회복을 꿈꾼다. 따라서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는 일방적으로 장미빛 미래만을 예언하는 과학자들의 논리에 대각을 세우면서, 현재의 테크놀로지 문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요컨대 과학자들의 예견이 맞느냐, 공상과학영화의 묘사가 맞느냐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공상과학영화에서 재미만을 찾지 않고, 거기에서 그려지는 파국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한층 건설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통제할 것인가?"라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추천**

English



원 제_ 《테크노포비아》Technophobia
저 자_ 다니엘 디넬로 Jimmy Carter
출판사_ University of Texas Press

일본인 소설가의 한국이라는 보물찾기

김훈아 | 번역가

Japanese



원 제 《달의 계수나무 月の桂》
저 자 나카자와 케이 中川ケイ
출판사 集英社

1978년, 18살에 《바다를 느낄 때》란 작품으로 군조 群像신인상을 수상한 나카자와 케이. 소년과 소녀, 어른과 아이, 소녀와 어머니의 갈등 등을 파격적으로 그린 이 작품은 그 해 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발로 차고 싶은 등짝》(2003년) 등으로 적지 않은 한국팬을 갖고 있는 와타야 리사 등 10대 작가의 시조가 되었다. 그 후 《수평선 위에서》《바람의 말, 바다의 기억》《수도권》《음악대의 토끼》 등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만도 30여권, 그녀는 소녀 작가로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는 중견작가가 되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2001년도 작품 《달의 계수나무》이다. 1997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스바루〉란 문예지에 연재되었던 이 작품은 작가 나카자와 케이의 한국과 관련된 유년기부터 오늘날까지의 기억과 경험을 한곳에 모은 소설집이다. 〈은자의 나라 걸음걸이〉〈지상의 소금〉〈녹색 비〉 등 여덟 편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집은 이야기 중심의 작품이라기보다는 한국이라는 '공간'의 씨줄과 기억과 경험이라는 '시간'의 날줄로 옷감을 짜면서 문득 문득 개입되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무늬를 만들어가는 대단히 자유로운 수필 같은 소설이다.

등장인물에는 작가로 여겨지는 '나'가 등장하는데, 주변에서 한반도에 대한 오랜 관심의 이유를 물으면 '나'는 늘 유년시절의 보물찾기 장소였던 외할아버지댁 창고를 떠올린다. 그곳에서 찾아낸 은도금한 비녀가, 소녀였던 '나'와 한국과의 첫 만남이 기 때문이다. 비녀를 통해 알게 된 우아한 한반도의 편린은 대학시절 도서관에서 발견한 조선시대의 활자판과 3.1운동 당시 "조선의 벗에게 보내는 서"를 쓴 야나기 무네테이시(柳宗悦), 그리고 당시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던 한국의 긴박한 정세에 관한 관심 등으로 전개된다.

저자의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은 한국 사람들과의 체운을 느낄 수 있는 교류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10여 년간 개최되었던

〈한일작가회의〉에서 만난 한국 작가들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책을 대하는 우리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것이다. '나'가 만난 한국작가들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을 언어로 파악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사회와의 긴장관계를 늦추지 않는, 현재 일본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작가들로 비추어진다.

서정적인 문장과 오감을 자극하는 묘사 또한 이 작품집의 특징이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놓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란 구전민요는 여덟 편의 단편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며 컷가를 맴돈다. 한국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늘이나 고기 굽는 냄새가 외국인의 코를 자극하리란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책엔 광화문 주변에서는 떡갈나무와 녹나무 냄새, 종묘 근처에서는 생감자를 갈 때의 냄새 등, 서울 시내는 지역별로 냄새가 확연히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람을 품고 걸어가는 모습이 나비와 같은 노인의 한복차림과 단청의 배경이 된 신록의 모습 등이 그녀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외국작가의 오감과 섬세한 필치로 모아진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새로운 발견임과 동시에 그리운 기억이다. 저자는 오랜 시간 이웃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 책은 그러한 발견에 감사하는, '한류'라는 말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절부터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 온 이웃 작가의 한국에 대한 우정의 서이다. **한류**

미테랑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들

조정훈 | 번역가

이탈리아의 역사가 베네데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현대의 가치나 미래의 전망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들의 평가 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에서도 10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자신들의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8일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사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는 7년 임기의 프랑스 대통령을 두 번 역임하며 무려 14년 동안 프랑스를 이끈 정치 지도자였다. 좌·우파를 대표하는 샤를 드골과 프랑수아 미테랑의 통치기간 동안의 사건과 업적만 살펴도 프랑스 현대사를 두루 꿰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재임기간은 프랑스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확대, 사형제 폐지, 유럽연합 주도 등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등 오늘날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덕목들을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구현했던 지도자로 꼽히는 반면, 무리한 국유화 정책과 공공지출 확대로 국가재정을 바닥나게 하고 오늘날 프랑스의 쇠퇴를 몰고온 한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그는 퇴임과 사망 이후 더 많은 스캔들에 시달리는 특이한 인물이다. 그의 장례식 날 검은 옷을 입고 미망인 옆에 모습을 드러냈던, 숨겨진 딸 마자린 팡조의 모습은 프랑스 국민들의 가슴 속에 복잡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의 재임 중 행해졌던 도청 사건, 금전 스캔들, 사회주의자인 그가 젊은 시절엔 극우 가톨릭 교도였으며, 레지스탕스의 일원이었던 그가 한때는 비시 괴뢰정부와도 깊은 연관을 가졌었다는 폭로 등은 그를 더욱 복잡하고 모순에 찬 인물

로 만들고 있다.

이 때문일까? 미테랑 10주기를 맞아 그에 대한 평가나 사생활의 비밀을 다룬 책만 20여 권이 출간되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책은 자크 아탈리가 쓴 미테랑 평전 《프랑수아 미테랑은 이랬다》이다. 자크 아탈리는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미래학자이다. 특히 아탈리는 ‘미테랑의 노트북 컴퓨터’란 별명과 함께 거의 30년 간 미테랑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 미테랑 평전의 적임자임에 틀림없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아쉬움으로, “우상이 사라진 빈 받침대”에 인간 미테랑의 새로운 얼굴을 새겨 넣는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과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미테랑이란 인물에 따라붙는 수많은 의문들에 하나하나 답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념과 외교적 행적, 인간적 고뇌, 정적들과의 관계 등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 했던 그의 오랜 동지에 의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여론조사는 미테랑을 샤를 드골을 제치고 프랑스 제5공화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았다. 국민 60퍼센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서고, 유럽통합 비준을 위해 3시간에 걸쳐 18명의 상대와 격론을 벌이던 옛 대통령의 열정에서 국민들은 강했던 지도자와 강했던 프랑스의 옛 추억을 되씹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역사가 현대사라는 말이 맞다면, 미테랑이란 인물에게 이토록 복잡한 얼굴을 부여한 것은 각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얼굴을 다르게 그리고 싶어 했던 프랑스 국민들 자신일 것이다. *******

Fre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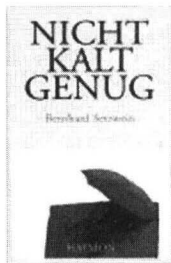


원 제 《프랑수아 미테랑은 이랬다》(C'était François Mitterrand)
저 자_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출판사_ Fayard

도피처에서 만난 니체는 어떤 인간이었나?

김재혁 | 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German



원 제 《차가운 대로 차가워지자
Nicht kalt genug》
저 자 베른하르트 제츠바인 Bernhard Setzwein
출판사 하이몬 Haymon Verlag
출판연도 2000

프라하 하면 카프카가 떠오르고, 바이마르 하면 괴테가 떠오른다. 문학이나 정신의 영역에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와 연관을 갖는 경우가 많다. 괴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경우도 그렇다. 그에겐 고지대에 위치한, 스위스의 작은 마을 실스-마리아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세기에 이미 병에 걸려 극단적인 성향을 띠게 된 그는 이탈리아의 무더위와 경멸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인간들의 사회로부터 도피처를 바로 그곳에서 찾았다. 맑은 풍경과 고지대의 상큼한 공기가 그를 그곳으로 이끈 것이다. 그곳은 그의 말대로 “해발 6,000피트로 모든 인간적인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1889년 니체가 쓰러지기 전 몇 년의 시간이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다.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동굴”에서 타협을 거부하는 그만의 글을 쓰기 위해 일부러 초라하고 어두컴컴한 방을 구한다. 그곳에서 반쯤 눈이 멀고 여행을 하기도 너무나 허약해진 니체는 끔찍한 편두통에 시달린다. 그러면서도 “강철처럼 차가운 철학”을 살고자 한다. 대작을 쓰고자 하는 열망이 그를 살린다.

《일곱 가지 정의의 책》의 저자인 베른하르트 제츠바인은 니체가 실스-마리아에서 보낸 일곱 번의 여름을 가지고 한 편의 소설을 썼다. 소설이긴 하지만 다큐먼트 풍이다. 제츠바인은 쓸데없는 추측을 포기한다. 일부러 무슨 센세이션을 도모하지도 않고, 니체가 실스-마리아에서 보낸 여름을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할 뿐이다. 니체가 묵었던 집 딸과의 긴 산책, 그의 방에서 자주 일어났던 어린애 같은 발작, 인간 혐오증, 점점 더 작아져만 가는 인간관계 등을 말이다. 근처에 있는 호텔은 철학자 니체에게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주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만의 철학적 동굴 속으로 칩거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그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초인적으로 경멸하기에 이른다. 끝내는 자신의 원칙을 위해 가족마저도 멀리한다.

니체는 단순한 것, 강한 것을 선포한다. 약한 시력 때문에 자기가 쓴 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자 “모든 가치의 전도”가 발생한다. 높은 것, 숭고한 것에 대한 추구하고 고통스런 현실로 인해 니체의 모습에서 기이한 면이 보이긴 하지만 저자는 그의 모습을 희화화하지 않는다. 그가 머물렀던 집의 주인 기안이나 그의 어린 딸과의 대화는 지적인 수준에서보다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비록 기안이 그 위대한 철학자의 디오니소스 찬가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와 통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니체의 철학에 대해 논하려 하지 않고 인간 니체에게만 집중한다. 가치 판단 대신 마치 의학적인 진단을 하듯 그의 생을 조명한다. 조용하면서도 냉정하게, 그로테스크한 일상을 냉정하게 묘사함으로써 제츠바인은 한 세기 동안 부지불식간에 오해를 받았던 니체의 인간적인 모습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철학적인 괴물의 모습으로 비친 니체를 하나의 인간으로 되살려놓는다. 니체의 생각과 일상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니체의 입을 통해 직접 들려준다.

이 책은 2000년에 니체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발간되었다. 그 철학적 거인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에 행해진 수많은 전시와 출판 중에서 작지만 태풍의 눈처럼 아주 집약적인 소설이다. 불과 128쪽 밖에 되지 않지만 인간 니체의 핵심을 알 수 있으며 거기서부터 그의 철학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베른하르트 제츠바인은 1960년 뮌헨에서 출생하였으며, 여러 문학 장르에 걸쳐 글쓰기를 하고 있으며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소박한 언어로 실스-마리아 마을사람들의 시각까지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정신적 거인을 추구한, 그러다가 정신착란의 지경에까지 이른 니체의 어린애 같은 측면도 추적한다. **추천**